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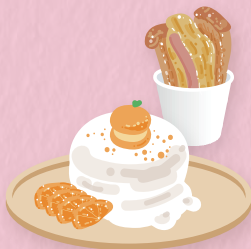
한국의

숨은 골목

7

맛집

여행



선정기준 |

골목길

여행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숨은 골목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접근성, 인지도,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7개를 선정함.

골목별 맛집

코스 인근 위치한 다이닝레스토랑 중 '블루리본 서베이', '안심식당'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인증 획득, 미디어 노출, 5년 이상 영업 지속, '지역특색 요리' 여부, 각 골목길의 여행 테마 및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함.

목 차

- **한눈에 보는 골목 맛집 여행**

| | |
|----|--|
| 01 | 서울 서순라길 6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음식과 전통 디저트 |
| 02 | 서울 용리단길 14 한국 속 작은 외국에서 즐기는 이국음식 |
| 03 | 송도 카페거리 23 도심 속 오아시스에서 만나는 퓨전음식과 이색 카페 |
| 04 | 전주 객리단길 34 비빔밥, 콩나물국밥이 있는 한국 최초 음식 유네스코 창의도시 |
| 05 | 대구 앞산 카페거리 49 한국 원조 막창골목부터 로컬 푸드까지 |
| 06 | 부산 현여울문화마을길 58 오션뷰를 배경으로 양은 냄비 라면과 성계알김밥 |
| 07 | 제주 애월 한담해안산책로 66 제주 특산물로 양껏 즐기기 |

한눈에 보는 골목 맛집 여행

서울편



한눈에 보는 골목 맛집 여행

지역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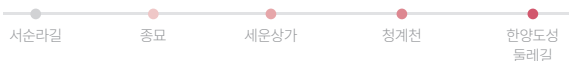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음식과 전통 디저트, 서울 서순라길

옛 조선의 치안을 담당하던 순라군이 다니던 길을 따라 현대 서울로 이어지는 골목길에서 건강 식재료를 만든 전통 음식과 디저트, 발효식품을 활용해 동서양을 모두 담은 퓨전음식을 맛보는 코스



서순라길 여행코스(3H)



인근역

◇ 종로 3 가역 도보 5 분

서순라길 코스는 한옥의 정취가 흐르는 서순라길을 시작으로 서울의 물길 청계천을 따라 도시의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한양도성 둘레길까지 이어진다. 약 3시간으로 구성된 골목여행 코스를 따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진짜 매력을 만나보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골목길, 서순라길



한옥이 늘어난 서순라길



서순라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얼리 공방

고속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도시적인 모습도 아름답지만, 골목길 곳곳에는 옛 전통이 어우러진 서울의 숨은 매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서순라길을 시작으로 청계천을 따라 서울 한 바퀴를 걸어보자. 수천 년의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진짜’ 모습이 펼쳐진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500년의 역사를 지닌 조선시대*에도 ‘한양’이란 이름의 수도였다. 도성 내 왕가가 머물던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 주변으로 한옥마을이 형성되었고, 현재 해당 일대는 서울에서 가장 전통적인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덕분에 경복궁과 창덕궁 주변은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여행자들이 바쁘게 붐비는 편이다. 로컬이 뽐는 매력적인 숨은 골목길, 서순라길은 전통과 현대의 감성이 조화롭게 녹아들었다.



서순라길 옆 중요 돌담길

서순라길은 중요 돌담길을 따라 약 800m가량 이어진 골목길로, 조선시대 도성 안팎의 치안을 담당하던 순찰대 ‘순라군’이 치안을 위해 순찰을 다녔던 길이다. 골목에는 조선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 ‘한옥’이 개조된 식당과 카페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조성한 공예 창작거리*로 골목 곳곳에 주얼리 공방이 숨겨져 있으니, 느린 발걸음으로 아기자기한 소품을 구경해도 좋겠다.

* 조선 :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약 518년 동안 이씨가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왕조

* 공예 창작거리: 서울시가 서순라길 인근에 위치한 중로 귀궁속 거리의 전통과 청년들의 공예 창작 문화를 결합해 조성한 문화거리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서울 중로구 권농동 🕒 운영시간 : 점포마다 상이

서순라길 추천 메뉴

정갈하고 깔끔한 메밀의 매력, 잘빠진메밀



잘빠진메밀의 대표메뉴인 순메밀막국수

건강한 식재료 메밀로 만든 한식을 선보이는 ‘잘빠진메밀’의 대표 메뉴는 다양한 양념을 곁들인 3종류의 메밀국수다.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즐기기에 좋은 물막국수, 매콤한 양념이 가미된 비빔막국수, 들기름과 특제 간장으로 맛을 낸 들기름막국수가 준비되었으니 취향에 맞게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메밀면은 밀가루가 첨가되곤 하는데, 이곳에선 밀가루가 첨가되지 않은 순메밀 본연의 맛을 선보여 더욱 매력적이다.

또 다른 인기 메뉴인 메밀 왕만두는 담백한 막국수와의 궁합이 훌륭하다. 다진 고기와 야채로 실하게 채워진 메밀 왕만두는 찌만두와 튀김만두 중 선택이 가능하다. 동절기에는 메밀 만두를 국물에 푹 끓여 낸 ‘메밀꽃 만두전골 밥상’이 인기다.



메밀 튀김 왕만두

기본 정보

- 📍 상호 : 잘빠진메밀 익선점 📍 상세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8길 73
- 🕒 영업시간 : 월 - 금 11:00 ~ 21:30, 토 - 일 11:00 ~ 21:30 (15:30 ~ 16:30 브레이크타임)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순메밀막국수 9,000 원, 메밀 튀김 왕만두 7,000 원 ☎ 0507-1441-1214

한옥에서 즐기는 전통 디저트, 카페 사사



구운 가래떡과 막걸리가 제공되는 메뉴 사사 한상 차림

메밀국수로 배를 채웠다면, 한국의 전통 디저트와 음료로 한식의 매력을 이어가 보자. 잘빠진메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한옥 카페 사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재해석한 디저트와 음료를 판매 중이다. 가장 한국스러운 디저트를 원한다면 '사사 한상 차림'을 추천한다. 구운 가래떡과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로 구성된 메뉴로, 쌀로 만든 가래떡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곁들여 나오는 달달한 조청과 고소한 콩가루가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가래떡에 풍미를 더해준다. 카페 사사에서 제공되는 막걸리는 무알코올 음료로 술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도 막걸리의 맛을 경험하기 좋다.

상큼한 한국식 디저트를 맛보고 싶다면 '과편'이 좋은 선택지다. 제철 과일로 만든 과편은 서브 스타일의 과일 묵으로, 과일의 과즙에 녹두 녹말을 풀어 설탕과 꿀을 더해 굳힌 디저트 메뉴다. 서양인 과일 젤리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다. 카페 사사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따 지어진 이름으로, 그 이름답게 바람 소리를 들으며 한옥의 아름다움과 차분한 사색을 동시에 누리기 좋다. 1층에서는 서순라길의 돌담길을 정면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2층 창가 자리에서는 종묘 담벼락과 주변 한옥 건물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기본 정보

- 📍 상호: 카페 사사 📍 상세 주소: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 147 1~2 층
- 🕒 영업시간: 월 - 금 12:00 ~ 19:00, 토 - 일 12:30 ~ 19:00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사사 한상 차림 9,300 원, 과편 8,600 원 ☎ 02-762-7001



제철 과일로 만든 과편



테라스 자리

역대 왕가의 혼을 모시는곳, 종묘

서순라길을 걷다 보면 하나의 호기심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과연 돌담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돌담 너머에 자리한 종묘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국왕과 왕후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 ‘신주’를 모시고 제를 올리는 사당이다.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다시 재건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종묘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건 실제 제례가 여전히 치러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제례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과 11월 첫째 주 토요일, 조선 왕조의 후손인 ‘전주 이씨’의 자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임진왜란 :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 차례 걸친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57

🕒 운영시간 :

- 시간제 관람 (언어별로 해설 시간대 상이) / 일반관람 (토, 일, 공휴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2월 ~ 5월, 9월 ~ 10월 9:00 ~ 18:00 / 6월 ~ 8월 9:00 ~ 18:30 / 11월 ~ 1월 9:00 ~ 17:30

📌 입장료 (23.3월) : 대인 1,000 원, 외국인 (만 19세 ~ 64세) 1,000 원 / 한복 착용 시 무료



신주를 모시는 종묘 풍경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드라마 촬영지 세운상가



세운상가 외관



레트로한 분위기가 풍기는 세운상가의 가게

종묘의 바로 맞은편,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세운상가에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 펼쳐진다.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인 세운상가는 1970-8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 했던 전기, 전자 산업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지난 세월이 쌓인 풍경도 매력적이지만, 세운상가가 요즘 다시 주목받는 건 레트로한 감성 카페 ‘호랑이’, 철학 서점 ‘소요서가’ 등 젊은 감성이 돋보이는 공간들 덕분이다. 오래된 건물을 재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금의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했고, 이에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됐다.

더불어 세운상가는 배우 송중기가 출연해 화제였던 드라마 <빈센조>에 모습을 드러내며 유명세가 더해졌다. <빈센조>는 방영 당시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필리핀 등의 지역에서 넷플릭스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해외 팬들에게도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 속 주요 배경이었던 ‘금가프라자’가 바로 이곳이니 만약 빈센조의 애청자라면 드라마 속 장면들을 떠올리며 세운상가 곳곳을 누벼봐도 좋겠다.

기본 정보

📍 상호 : 세운상가 📍 상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 영업시간 : 점포마다 상이

청계천을 따라, 서울의 또 다른 맛집 골목으로

세운상가를 걷다 보면 공중보행데크 아래 흐르는 물길이 보이는데, 바로 도심 속 자연이 어우러지는 청계천이다. 청계천은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하천을 따라 약 5.8km 가량 조성된 서울 시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이다. 연말, 연초를 비롯해 연례 행사마다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서울의 문화가 흐르는 주요 명소이기도 하다. 세운상가 앞을 시작으로 동쪽 방면으로 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광장시장, 동대문 닭 한 마리 골목, 헌책방 거리 등 다채로운 서울의 모습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기본 정보

📍 서울관광플러자 관광 안내센터 (청계천 인근 관광안내소)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85 ☎ 02-6365-3100 🕒 운영시간 : 09:00 ~ 18:00



청계천 전경

서울도심 길을 따라 즐기는 로컬 푸드, 광장시장

광장시장은 1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상설시장으로 빈대떡, 마약김밥, 육회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또한, 인근 닭 한 마리 골목에서 커다란 냄비에 닭 한 마리를 토막 내어 맵지 않게 우려낸 맑은 '닭 한 마리'도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즐겨봐도 좋겠다.



광장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인 빈대떡, 마약김밥, 육회



닭 한 마리 골목



맑게 끓여 낸 '닭 한 마리' 요리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



한양도성 둘레길 낙산 구간

성곽 도시 산책, 한양도성 둘레길

물길을 따라 걸었다면, 이번에는 서울의 울타리 한양도성을 따라 걸어볼 차례이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이었던 한양을 지키기 위해 지어진 성곽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도심을 에워싼 성곽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한양도성을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은 총 6개의 구간으로 구성됐으며, 그중 낙산 구간은 한양도성의 동대문인 흥인지문을 시작으로 혜화문까지 이어진다. 청계천 현책방 거리에서 흥인지문까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니 함께 들르기 좋은 위치다.

숨이 차오를 때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흥인지문부터 서울 대표 복합 문화 공간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여 근사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흥인지문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6 가 70
- 🕒 운영시간 : 24 시간 개방

한국의 식재료를 맛볼 전통 주점, 우리술집 다람쥐



대표메뉴인 제주 피순대 구이



토하젓 파스타

또 다른 인기 메뉴인 토하젓 파스타는 강진 지역의 토하젓으로 감칠맛을 더한 스파게티다. 토하젓은 민물새우를 소금에 절여 만든 젓갈로 짭짤한 맛이 특징인 한국의 대표 발효 식품이다. 한국의 젓갈이라는 식재료에 스파게티를 접목하여 보다 친숙한 방식으로 한국의 맛을 즐겨볼 수 있다. 우리술집 다람쥐에서는 한국의 전통주도 다양하게 판매 중이다. 한 병을 시키기에 조금 부담스럽다면, 한 잔씩 천천히 즐길 수 있는 메뉴 ‘텨막걸리’를 주문해 보자.

기본 정보

- 📍 상호 : 우리술집 다람쥐 📍 상세 주소 :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 101 1 층
- 🕒 영업시간 : 화 - 금 17:00 ~ 23:30 / 토 - 일 16:00 ~ 23:30 / 매주 월요일 휴무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제주 피순대구이 22,000 원,
토하젓 파스타 19,000 원 , 텨막걸리 7,800 원
- ☎ 070-4258-8880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골목 여행을 즐겼으니 마지막 메뉴 또한 한식과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퓨전 요리 맛집에서 즐겨보자. 돌담길을 마주한 전통 주점 ‘우리술집 다람쥐’에서는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해 만들어진 다양한 퓨전 요리를 선보인다.

우리술집 다람쥐의 시그니처 메뉴는 제주 피순대 구이로, 피순대는 선지에 버무린 속 재료를 내장에 채운 요리다. 피순대 구이에는 청양고추를 더한 막장 소스와 트러플 마요 소스가 함께 제공된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한국식 막장 소스와 서양 스타일의 트러플 마요 소스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니 두 소스 모두 맛보기를 추천한다.



돌담길을 마주하는 우리술집 다람쥐 (좌) 한잔씩 즐길 수 있는 텨막걸리 (우)

한국 속 작은 외국에서 즐기는 이국 음식, 용리단길

개성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힙한 MZ세대에게 각광받는 거리. 힙한 골목길을 따라 개성 있는 소품숍부터 샌프란시스코, 일본 등 세계 속 다양한 맛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속 작은 외국



용리단길 여행코스(2H)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즘 제일 많이 찾는 곳이 궁금하다면 ‘~리단길’로 향하면 된다. 석촌호수 일대에 위치한 ‘송리단길’, 망원동 일대를 부르는 ‘망리단길’ 그리고 소개할 ‘용리단길’ 등 MZ세대가 찾는 핫플레이스에는 ‘리단길’이 들어간다. 이는 이태원 주변 ‘경리단길’이 2015년 큰 인기를 끌자 동네 이름에 ‘리단길’을 붙여 동네를 알리는 문화가 생겨난 데서 비롯되었다. 용리단길은 개성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지향한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 ‘힙하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미식여행과 더불어 남산 포토존,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 그리고 소품숍으로 구성된 코스는 도보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힙한 취향과 문화가 궁금하다면 용리단길로 떠나보자.



용산가족공원 연못과 대형 조형물

용산가족공원 으로 시작하는, 용리단길

노포가 밀집되었던 용리단길이 상권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2019년,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이 들어선 이후부터다. 근처 유동 인구와 상권이 늘어나던 중 2021년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 사옥이 들어서며 용리단길의 상권은 더욱 활발해졌다. 용산가족공원을 시작으로 용리단길 여행을 시작하자.

이곳은 과거 용산 기지의 일부로 주한미군 사령부의 골프장으로 쓰였던 부지로 골프장 지형을 토대로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녹지공간이다. 공원 곳곳 7개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에게 기증받아 설치된 대형 조각품들도 있으니 도심 한복판에서 예술품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기고 가도 좋겠다.

*7개 국가: 한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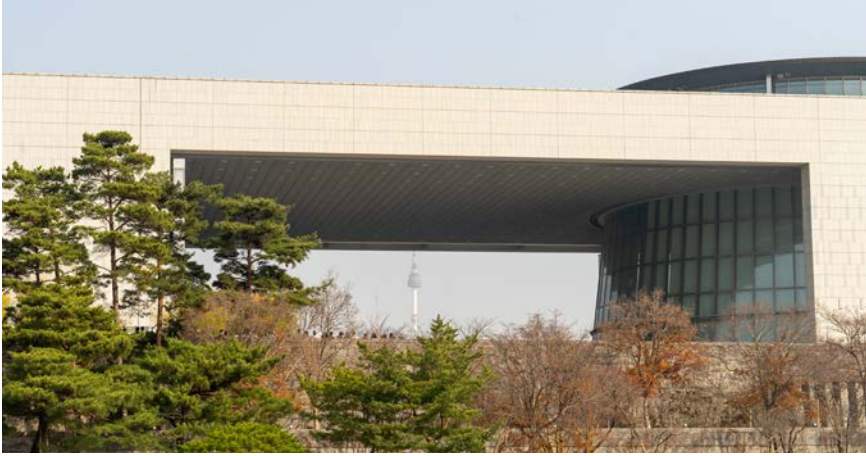


공원 내 손모양의 조형물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떠오르는 남산타워 포토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외관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고미술, 유물을 중심으로 소장하는 한국의 대표 국립박물관으로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전시 관람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는 이들도 많지만,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남산타워'가 잘 보이는 명당으로 입소문이 나며 방문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남산타워는 명동에 위치한 전망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다. 이곳에서는 하늘과 함께 역광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유명하니 MZ세대들의 인증샷 대열에 합류해 봐도 좋겠다.



박물관 내 남산타워 포토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에 4개 외국어*로 소장품 해설도 진행 중이니 포토스팟뿐만 아니라 실내 전시 관람도 지나치지 말자.

*4 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진행하며 언어마다 스케줄 변동이 있어 홈페이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 10:00 ~ 18:00 (입장 마감 17:30) / 수, 토 10:00 ~ 21:00 (입장 마감 20:30)
- 🎫 입장료 ('23.3 월): 무료 (특별전시 제외) 🌐 <https://www.museum.go.kr> (영/중/일)

K-POP팬들에게 필수 코스로 꼽히는 하이브 사옥

하이브 사옥 앞에선 대표적인 K-POP 문화인 생일카페*를 비롯해 생일 축하 현수막 등을 찾아 투어하는 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 생일카페 :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팬이 직접 카페를 대관해 카페 내부를 아티스트의 사진이나 앨범 등으로 꾸미고 팬들끼리 모여 즐기는 문화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하이브 사옥 외관



하이브 아티스트 기념일 현수막

용리단길 추천 메뉴

서울에서 느끼는 샌프란시스코, **쌈쌈쌈**



쌈쌈쌈 외관 모습

남산타워 포토스팟과 하이브를 걸어 다니며 인증샷을 찍었다면 이제는 허기진 배를 채워줄 차례다. 용리단길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19년 상권이 생겨나면서 해외여행의 욕구를 채워줄 미국, 베트남, 태국 등 외국 감성이 물씬 나는 식당이 다수 들어섰다. 그중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양식 레스토랑, 쌈쌈쌈으로 가보자.

수입 식재료가 진열된 펜트리, 토마토가 가득한 포스터 등으로 꾸며진 식당 내부는 이국적인 풍경과 개성 있는 메뉴로 오픈 이후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별도의 예약을 받지 않아 영업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 오픈 시간대에 맞춰가는 것을 추천한다.



쌘쌘쌘 내부 모습



식전 메뉴인 자색고구마노끼



쌘쌘쌘의 대표 메뉴, 라자냐

귀여운 스마일 감자튀김이 포인트로 올라간 자색고구마노끼는 쫄득한 노끼의 식감과 달달한 자색고구마 크림이 어우러져 식전에 입맛을 돋우기 좋다.

시그니처 메뉴인 캘리포니아 스타일 라자냐는 라자냐 면 사이에 해시브라운이 들어간다는 점이 독특하다. 해시브라운 속 감자 알갱이가 터지는 재미난 식감은 물론, 진한 고기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매력적인 메뉴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통낙지 먹물 리소토도 인기 메뉴 중 하나다.



낙지 먹물 리소토

기본 정보

- 🏠 상호 : 쌘쌘쌘 📍 상세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0 길 251 층
- 🕒 영업시간 : 매일 11:00 ~ 15:00, 17:30 ~ 21:50 / 브레이크 타임 15:00 ~ 17:30 (주말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고구마 노끼 9,000 원, 캘리포니아 스타일 라자냐 19,000 원, 낙지 먹물리소토 21,000 원
- ☎ 0507-1309-1103 | <https://www.instagram.com/samsamsam.kr/>

치즈맛 라테를 즐길 수 있는카페, 퀴츠



아메리카노와 퀴츠라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자연스레 커피 생각이 난다면 쌤쌤에서 4분 정도 걸어 카페 퀴츠로 향해보자. 옛 벽돌 건물을 살린 외관 모습과 블루톤의 내부 인테리어가 상반되는 이곳은 2020년 여름에 오픈해 지금까지도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15년 경력의 국가대표 바리스타 유연주가 시즌마다 준비한 다양한 블렌딩 원두를 맛볼 수 있어 커피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다. 이곳의 인기를 책임져주는 메뉴는 농축우유가 들어간 ‘퀴츠라테’다. 65°C의 저온에서 5시간 동안 진공으로 농축한 우유는 단맛과 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퀴츠라테를 특별하게 해준다. 쫄쫄하고 묵직한 제형의 우유와 진한 에스프레소가 섞인 커피는 보통의 라테에서 느끼기 어려운 치즈 풍미가 인상적이다.

기본 정보

- 🏠 상호: 퀴츠
- 📍 상세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58
- 🕒 영업시간: 매일 11:00 ~ 19:00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퀴츠라테 7,000 원, 브루잉커피 6,500 원 ~
- ☎ 0507-1352-4188 | https://www.instagram.com/____quartz/

사진으로 가득한 소품숍 픽셀퍼인치



픽셀퍼인치 굿즈 판매대

사진과 기록을 중시하는 MZ 세대들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픽셀퍼인치'로 향해보자.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필름 카메라 대여 서비스도 비롯해 독립 출판 사진집 등 사진작가들의 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매장 안쪽에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 포토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필름 카메라 대여 서비스도 운영하니 용리단길의 추억을 색다르게 담고 싶은 이들은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기본 정보

- 📍 상호 : 픽셀퍼인치
- 📍 상세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 길 7 301 호
- 🕒 영업시간 : 평일 13:00 ~ 19:00 / 주말 13:00 ~ 19:30

용리단길을 더욱 감각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입구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은 이니스프리, 라네즈 등 한국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선보이는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 서성한 선대 회장의 개인 소장품을 기반으로 설립된 '태평양박물관'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태평양박물관을 아모레퍼시픽 사옥으로 이동시키면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곳에서는 동서양의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작품들로 다양한 전시를 진행한다.

기본 정보

- 📍 상호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 상세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
- 🕒 영업시간 : 10:00 ~ 18:00 (입장마감 17:30) 월요일 정기 휴무
- 📄 입장료 ('23.3월) : 전시마다 가격 상이 🌐 <https://www.amorepacific.com> (영)

용리단길의 떠오르는 베이커리, 브레디 포스트



프레즐이 진열된 내부 모습

한국 젊은이들 사이 꾸준히 인기 있는 트렌드 ‘빵지순례’. 이는 전국의 유명한 빵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성지순례에 빗대서 부르는 말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전, 천안, 부산 남천동이, 서울 내에서는 성수와 망원 일대가 대표적인 빵지순례 코스다. 최근 테디보르하우스, 도토리 등 다양한 베이커리 카페가 용리단길에 들어서면서 빵지순례를 오는 이들이 늘었고 신상 베이커리 카페, 브레디 포스트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버터 페퍼 프레즐과 더티초코 프레즐

브레디 포스트는 일반 프레즐에서 비해 부드럽고 쫄깃한 것이 특징인 소프트 프레즐을 메인으로 소개하는 카페다. 가장 기본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인 프레즐을 비롯해 페퍼로니, 코코넛, 버터 페퍼, 메밀 등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간 프레즐을 판매 중이다. 특히 고소한 크림과 톡톡 터지는 후추의 조합인 ‘버터 페퍼 프레즐’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다. 달달한 초코크림이 잔뜩 올라간 ‘더티 초코’도 당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기본 정보

☞ 상호 : 브레디 포스트

🕒 영업시간 : 11:00 ~ 22:00 (라스트오더 21:00)

🌐 https://www.instagram.com/breadypost_bakery/

📍 상세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4 길 62 층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프레즐 3,800 원 ~, 커피 및 음료 5,000 원 ~

용리단길 속 작은 일본, 키보



1차 가기 전 메뉴, 야키소바



2차 후 메뉴, 오이무침

용리단길에는 이국적인 외관을 가진 개성 넘치는 맛집들이 많아 서울 도심에서 해외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개성 있고 이국적인 것을 힌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용리단길이 사랑받는 이유다. 미국 감성 식당에 이어 일본의 현지 분위기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일본식 이자카야를 소개한다.

키보는 서서 마시는 일본 문화인 다치노미 컨셉트와 독특한 메뉴판 구성을 선보인다. 음식 메뉴와 음료 메뉴가 나누어진 일반적인 메뉴판 대신 출출할 때 먹기 좋은 '1차 가기 전' 메뉴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2차 후' 메뉴로 나누어 판매한다.

1차 가기 전 메뉴는 오므라이스, 교자, 야키소바 등 적당히 든든하면서도 입맛을 돋우기에 좋은 요리들로 구성되었다. 오이무침, 유자 토마토 사라다 등의 2차 후 메뉴는 상큼하면서 배가 불러도 부담스럽지 않은 메뉴로 구성됐다.

배가 부른 상태라면 맥주 대신 탄산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하이볼이나 키보 칵테일을 추천한다. 위스키에 과일 향을 가미한 키보 칵테일은 멜론, 레몬, 쿠리(밤) 등 종류가 다양한데 달달하면서 상큼해 부담이 적다.

기본 정보

- 📍 상호: 키보 📍 상세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0 길 17
- 🕒 영업시간: 월 - 목, 일 16:00 ~ 23:00 / 금, 토 16:00 ~ 24:00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월): 생맥주 5,000원 ~, 하이볼 8,000원 ~, 안주 6,000원 ~
- 🌐 <https://www.instagram.com/keebo/>



2차 후 메뉴, 유자 토마토 사라다

도심 속 오아시스에서 만나는 퓨전음식과 이색 카페, 송도 카페거리

세련된 한국 도심 속에서 즐기는 한옥과 쇼핑, 떡볶이 그라탱과 다양한 디저트를 즐기는 코스.

도심 속 조성된 대형 공원 '센트럴파크'와 한옥, 그라탱으로 변신한 떡볶이와 베이커리까지 속성으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는 송도 카페거리



송도 카페거리 여행코스(3H)



인근역

◇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
:도보 10분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 런던의 하이드파크(Hyde Park)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곳곳에 자리한 녹지 공간들은 늘 바쁜 현대인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며 관광명소로도 사랑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또한 그러하다. 인천공항 주변에 머물거나 스톱오버 중이라면 잠깐 시간을 내어 부담 없이 도심 속 오아시스를 경험해 보기 바란다. 커널워크에서 시작해 미식과 산책 그리고 쇼핑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인공수로를 따라 즐기는, 송도 카페거리

송도 카페거리는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몰이 있는 복합문화공간, 커널워크에 위치한다. 2009년 문을 연 이후 송도의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이곳은 커널(Canal)이라고 부르는 인공수로를 중심으로 카페와 맛집들이 즐지어 늘어서 있다. 공간은 사계절을 테마로 구성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명명된 4개의 건물이 보행로를 따라 연결되어 있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07
- 🕒 영업시간 : 점포마다 상이



가을 건물 앞 사람들 조형물

송도 카페거리 추천 메뉴

떡볶이와 그라탱의 콜라보, 맥스텔라



맥스텔라 내부

카페거리 산책을 모두 마쳤다면, 봄 건물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맥스텔라로 향해 보자. 맥스텔라는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 등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한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표 메뉴 ‘해산물 떡볶이 그라탱’은 한국의 떡볶이와 서양의 그라탱(Gratin)을 조합해 만든 퓨전음식이다.



맥스텔라 대표메뉴, 해산물 떡볶이 그라탕

떡볶이는 떡과 고추장, 채소를 넣어 볶은 매콤한 맛을 자랑하는 한국의 대중적인 길거리 간식이다. 치즈떡볶이, 간장소스를 넣은 궁중떡볶이, 기름으로만 볶은 기름떡볶이 등 다양한 조합으로 변형해서 즐기기도 한다.

맥스텔라의 ‘해산물 떡볶이 그라탕’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오징어와 꽃게, 새우, 홍합 등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 있다. 떡뿐만 아니라 스파게티 면도 함께 어우러져 파스타와 떡볶이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메뉴다. 떡볶이의 매콤함은 치즈가 잡아주고 양배추 등의 다양한 채소가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치즈가 일부 매운맛을 잡아 주긴 하지만 그래도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다면 맥스텔라의 오므라이스를 함께 먹어 보기를 추천한다. 볶음밥 위에 올라간 계란의 부드러움이 떡볶이의 매콤한 맛을 중화시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매운 맛을 잡아줄 맥스텔라의 오므라이스

기본 정보

- 📍 상호 : 맥스텔라 📍 상세 주소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 🕒 영업시간 : 월요일, 화요일 정기휴무 / 수 - 일 11:30 ~ 22:00(브레이크 타임 15:00 ~ 17:30)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월) : 해산물 떡볶이 그라탕 (21,000원), 맥스텔라 오므라이스 (16,000원), 맥스텔라 콤 샐러드 (18,000원)
- 🌐 https://www.instagram.com/maxtella_cate/



G 타워 전망대에서 보이는 센트럴파크

송도 전망대는 여기! G타워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송도의 매력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G타워 33층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 전망대에 방문해보자. 이곳은 송도뿐만 아니라 갯벌체험과 조개구이로 유명한 오이도, 그리고 전망대에서 23km 떨어진 인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어 송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각 전망 포인트 아래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과 경관에 대한 명칭을 표기해 두어 주변 풍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2023년 3월부터 평일 야간 개방도 시작했으니 송도의 야경을 이곳에서 즐겨보는 것도 추천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 인천의 송도, 영종, 청라 일대를 말하며 국제적인 경제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정됐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 🕒 운영시간 : 월요일 정기휴무 / 화 - 금 10:00 ~ 21:00
(평일 야간개장 중) / 토 - 일 10:00 ~ 16:00
- 🎫 입장료 : 무료관람

센트럴파크 옆 커피맛집, 기노스코



기노스코 내부

산책을 즐기기 전 가볍게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러 카페 기노스코로 향해보자. 이곳은 커피와 디저트 모두 맛있기로 유명한 센트럴파크 인근의 핫플레이스다.

기노스코는 다양한 원두 라인업을 자랑하는데,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등의 인기 원두와 직접 블렌딩한 원두 2종도 맛볼 수 있다. 기노스코의 시그니처 메뉴는 '헤비화이트'로 목직한 원두의 바디감과 달달한 우유의 조합이 어우러져 진한 라테 맛이 느껴진다.



기노스코 아메리카노와 헤비화이트



기노스코 디저트, 홀리데이 케이크

여행 당일 날씨가 좋아 센트럴 파크에 앉아 피크닉을 즐기고 싶다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빵과 케이크를 포장해가도 좋겠다. 기노스코에는 커피와 함께 즐기기 좋은 까눌레, 휘낭시에, 마들렌 등 구움 과자를 비롯해 예쁜 비주얼을 자랑하는 케이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생딸기와 커스터드 크림으로 만든 부드러운 식감의 케이크 '프레지아', 라즈베리 잼이 들어간 치즈케이크 '홀리데이 케이크'는 귀여운 비주얼과 달콤한 맛으로 특히 인기가 높다.

기본 정보

- 📍 상호: 기노스코 📍 상세 주소: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03 상가 B 동 113 호
- 🕒 영업시간: 매일 11:00 ~ 23:00(라스트오더 22:50)
- 📄 대표 메뉴 및 가격(23.3월): 헤비화이트(6,500원), 아메리카노(5,300원), 케이크 8,000원~
- 🌐 https://www.instagram.com/ginosko_coffee/



센트럴파크 산책로에서 보이는 송도 고층건물들

송도의 오아시스, 센트럴파크

기노스코에서 커피나 디저트를 손에 들었다면, 이제 송도의 도심 공원인 센트럴파크를 둘러볼 차례다. 이곳은 고층 빌딩과 자연이 어우러진 직사각형 형태의 공원으로 크기는 축구장 면적의 56배인 약 14만 평에 달한다. 천천히 산책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 데에만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송도 센트럴파크는 대한민국 최초의 바닷물이 흐르는 공원으로, 공원에서 4km 거리에 떨어진 해수 처리장에서 바닷물을 취수해 실시간 정화 후 수로에 흐르게 한다. 정화를 거친 해수로는 항시 1급수를 유지해 송어, 우럭, 꽃게 등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또한 공원 내 숨겨진 한국적인 특징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일례로 한반도의 동고서저* 지형을 공원에 그대로 구현해 센트럴파크 동쪽으로 갈수록 구릉과 언덕으로 점차 높아지는 지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수로 중앙에 위치한 여러 개의 인공 섬들은 한반도 남단 '다도해*'를 표현했으니 현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센트럴파크 내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다. 송도 한옥마을, 트라이보울, 웨스트 보트하우스와 이스트 보트하우스를 차례대로 만나보자.

*** 동고서저 지형 :**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한국)는 국토 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었다. 높은 산들이 주로 동쪽 줄기를 따라 분포되어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 태의 지형을 가진다.

*** 다도해 :**

일반적으로는 섬이 많은 바다를 뜻하는 보통명사이나 한국에서는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에서 여수시 앞바다까지의 섬이 많은 바다를 일컫는 고유명사로 사용된다.

· 도시와 전통이 공존하는, 송도한옥마을



센트럴파크 내 한옥마을 입구 (좌) 한옥마을 내 카페 모습 (우)

한옥마을은 센트럴파크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다. 현대적인 건물과 한국의 전통한옥이 공존하는 풍경은 이질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다가온다. 내부에는 한옥호텔, 음식점, 카페가 있어 산책 중간에 잠시 쉬어 가기도 좋은 공간이다.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80

· 미래 도시의 건축물, 트라이보울



트라이보울 주경



트라이보울 야경

세 개의 그릇을 연결한 듯한 외형의 트라이보울은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무용, 연주회 등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에서는 재즈페스티벌, 사진전,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진행되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낮에 봐도 독특한 외관 모습이 눈에 띄지만 특히 해가 진 뒤에 건물 외벽에 조명이 점등되는 모습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상 깊은 풍경이다.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 운영시간 : 월요일 정기 휴무 / 화 - 금 13:00 ~ 17:30

• 센트럴파크 곳곳을 누비는 수상체험



센트럴파크에서 탑승할 수 있는 수상택시

센트럴파크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다양한 수상체험을 즐길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보트와 수상 택시를 타기 위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웨스트 보트하우스에서는 코스대로 움직이는 수상 택시를, 이스트 보트하우스에서는 직접 운전이 가능한 보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사진 속 수상 택시를 경험하고 싶다면 웨스트 보트하우스로 향해보자. 선착장에서 약 2km 구간을 왕복하는 코스로 총 20분 동안 탑승한다. 수상 택시 내부에는 창밖을 볼 수 있는 좌석들이 마련되어 G타워, 트라이보울, 한옥마을 등을 앉아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성인 기준 탑승료는 한화로 4,000원(23.3월)이다.



센트럴파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보트와 한옥마을 야경

이스트 보트하우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트를 타고 공원을 돌아볼 수 있다. 보트에 마련된 블루투스 기기로 노래를 들으며 공원 양옆으로 보이는 고층건물, 한옥마을, 수변을 따라 설치된 각종 조형물 등을 둘러보자. 특히 노을 질 무렵이나 야간에는 낮과는 다른 화려한 센트럴파크의 매력이 펼쳐진다.

보트는 조이스틱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쉽고 편하게 센트럴파크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문보트, 구름보트, 파티보트, 패밀리보트까지 총 4종류가 있으며 30분에 한화 약 4만 원대(23.3월)로 탑승이 가능하다.

기본 정보

- 📍 상호 : 이스트 보트하우스 📍 상세 주소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 🕒 운영시간 : 10:00 ~ 21:00 (계절 및 날씨에 따라 변동이 많은 편이라 현장 매표만 가능)

송도 쇼핑은 여기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트리플스트리트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쇼핑! 센트럴파크에서 송도의 풍경들을 감상하며 30분 정도 걸다 보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과 바로 옆 트리플스트리트에 다다른다.

이곳에서는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시즌별로 각종 할인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해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한 곳이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기본 정보

- 🏠 상호 :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 📍 상세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23
- 🕒 영업시간 : 매일 10:30 ~ 21:00



트리플스트리트

기본 정보

- 🏠 상호 : 트리플스트리트
- 📍 상세 주소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 번길 33-1
- 🕒 영업시간 : 매일 10:30 ~ 22:00

식물원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포레스트 아웃팅스

맛있는 음식과 관광, 그리고 쇼핑까지 즐겼다면 마무리로 송도 유원지에 있는 대형카페로 향해보자. 카페가 위치한 송도유원지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트리플스트리트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이동이 필요하다. 유원지 뒤편으로 청량산과 인천 둘레길 코스가 마련되었고 근처에 산책 후 들르기 좋은 카페가 많아 주말이면 산책과 카페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포레스트 아웃팅스는 식물원에 온 듯한 콘셉트의 공간으로 단순히 디저트와 커피를 즐기는 것을 넘어 휴식을 취하기 좋은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포레스트 아웃팅스 내부 (좌) 포레스트 아웃팅스 내 포토 스폿 (우)

3층 규모의 카페는 내부가 식물원처럼 꾸며져 있다. 유리 벽 너머로 비추는 채광이 좋아 머무는 내내 따뜻한 분위기가 감돈다. 내부에는 다양한 좌석이 준비되어 있고, 곳곳에 작게 꾸며진 정원들은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 스폿을 제공한다.



디저트 부쉬드노엘과 시그니처 음료 (좌) 다양한 베이커리 (우)

포레스트 아웃팅스에는 파스타, 피자를 비롯해 간단하게 먹기 좋은 브런치와 다양한 베이커리 종류가 준비되어 있다. 스콘, 케이크, 크루아상 등 화려한 비주얼의 디저트 메뉴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이곳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이다.

코코 오트 라테와 딸기 라테는 이곳의 시그니처 음료다. 코코 오트 라테는 코코넛 즙과 달콤한 시럽이 들어간 오트 음료로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통나무 모양의 부쉬드노엘은 폭신하고 달달한 초코케이크로 당을 충전하기에 제격이다.

기본 정보

- 📍 상호 : 포레스트 아웃팅스 송도점
- 📍 상세 주소 : 인천 연수구 청량로 145 포레스트아웃팅스 송도점
- 🕒 영업시간 : 매일 10:00 ~ 22:00 (라스트오더 21:00)
- 📍 인근 버스정류장 : 송도유원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8 분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커피류 6,800 원 ~ , 브런치 메뉴 19,000 원 ~ , 베이커리류 평균 7,000 원

비빔밥, 콩나물국밥이 있는 한국 최초 음식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 객리단길

한국 최초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인 전주. 세계적인 음식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로컬 음식 문화인 '가맥'까지 한 코스에 즐기며 조선왕조의 뿌리까지 엿볼 수 있는 골목길



전주 객리단길 여행코스(3H)



인근역

◇ 전주역 - 객리단길
:버스 30분

전주는 조선의 제1대 왕인 태조 이성계의 본관으로 조선 왕조의 뿌리가 되는 도시다. 또한, 도시 이름을 붙인 전주비빔밥을 비롯해 전주 콩나물국밥, 전주 초코파이 등 전주에서 시작된 음식들도 다양하다. 그 전통과 맛을 인정받아 전주는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역사적 이야기를 품은 여행지와 전주의 대표 음식, 그리고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까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이면 도착하는 전주에 고스란히 남겨진 한국의 맛과 멋을 마음껏 누리 보기 바란다.



객리단길 옆 풍패지관

전주 젊은이들의 변화가, 객리단길

전주의 대표적인 변화가인 ‘객사길’, ‘객리단길’ 이라고도 불리지만 전주 사람들은 보통 객사길이라고 부른다. ‘객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객사는 조선시대 나랏일을 하는 관료들이 왕명으로 묵었던 관사를 말한다. 전주지역의 객사 ‘풍패지관’이 객사길 초입에 위치해 풍패지관 옆길도 자연스럽게 ‘객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객리단길 내에는 다양한 맛집과 예쁜 카페, 상점들이 즐지어 들어서 있어 20~30대 젊은이들이 찾는 변화가로 자리 잡았다.



객리단길 풍경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2가 10-1
- 🕒 운영시간 : 점포마다 상이

• 영화의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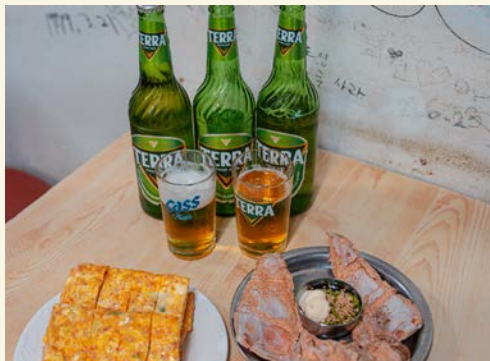
객리단길 옆에 위치한 ‘영화의 거리’도 잠시 둘러보자. ‘전주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는 4월 말이 되면 ‘영화의 거리’부터 객리단길까지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 포스터가 가득 채워진다. 출품된 영화들은 객리단길에 위치한 영화관과 카페막시 이 진행되는 ‘전주돔’에서 상영된다.



객리단길 옆 영화의 거리 풍경

전주 객리단길 추천메뉴

• 가맥집



가맥집 안주와 맥주

저녁이 되면 객리단길 근처는 ‘가맥집’을 찾는 사람들로 일대가 더욱 시끌벅적해진다. ‘가맥’은 술집이 아닌 가게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문화를 말한다. 전주의 직장인들이 퇴근길 슈퍼 앞에 앉아 맥주 한 잔과 값싼 안주로 하루의 피로를 풀던 것에서 시작해 저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주의 술 문화로 발전했다.

황태포, 계란말이, 땅콩 등 기본적인 안주부터 가맥집별 시그니처 메뉴까지 다양한 안주를 판매 중이다.

기본 정보

📍 상호 : 전일감포 📍 상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 2길 16 🕒 영업시간 : 매일 15:00 ~ 익일 1:00 / 일요일 정기 휴무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황태포 12,000 원 , 계란말이 8,000 원

미술랭에도 소개된 전주비빔밥, 한국집

객리단길에서 도보 10분 정도 이동하면 전주비빔밥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국집’이 보인다. 1952년 개업한 한국집은 전주비빔밥의 원조로 불리는 식당으로 2011년 미술랭 가이드 한국 편에 소개되기도 했다.

비빔밥은 밥 위에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등 여러 종류의 나물을 얹어 양념장과 함께 비벼 먹는 한국의 전통음식이다. 양념장으로 들어가는 고추장은 한국 요리에서 자주 쓰이는 소스로 매콤한 맛을 자랑한다.

비빔밥에는 먹는 이의 기호에 따라 볶은 고기, 육회, 꼬막 등 다양한 재료를 추가해 즐길 수도 있다.



기호에 따라 육회를 곁들인 비빔밥



한국집 돌솥비빔밥

한국집에서는 전주비빔밥, 돌솥비빔밥을 판매한다. 전주비빔밥과 돌솥비빔밥은 재료가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식기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주비빔밥은 예로부터 사용하던 놋그릇*에, 돌솥비빔밥은 먹는 내내 따뜻함이 유지되도록 돌솥에 담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무엇보다 한국집의 모든 비빔밥 메뉴에는 전주 10미*에 해당하는 황포묵이 들어가 더욱 특별하다. 황포묵은 말강한 식감이 부드러운 녹두목을 치자 물에 물들인 전주의 대표 식재료이다. 한국의 고유 식품 중 하나인 ‘묵’은 곡식의 전분을 물에 풀어 되직하게 끓인 후 굳혀서 먹는 음식이다. 이외에도 콩나물, 애호박 등 전주 10미가 다양하게 담겨 있어 전주의 재료를 맛보기에 완벽한 메뉴라고 할 수 있겠다.

* 놋그릇: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 니켈을 혼합한 합금 ‘놋’을 망치질로 두들겨 만든 그릇을 부르는 말로 구리의 살균효과와 뛰어난 보온, 보냉 효과로 신선함을 유지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

* 전주 10 미:

전주를 대표하는 식재료 중에서도 특히 독특하고 맛있는 10 가지의 재료들을 부르는 말이다. 황포묵, 미나리, 콩나물, 애호박, 무, 파라시, 열무, 게, 모래무지, 서초까지 10가지 식재료를 뜻한다.

기본 정보

- 🏠 상호 : 한국집
- 📍 상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19
- 🕒 영업시간 : 매일 9:30 ~ 21:00 (브레이크 타임 16:00 ~ 17:00)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전주비빔밥 13,000 원, 돌솥비빔밥 13,000 원
- ☎ 063-284-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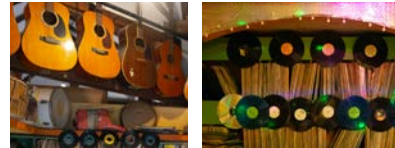
전주난장 내 재현된 구 전주역과 기차

한국의 20세기로 떠나보자! 전주난장

한국집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전주난장은 개인이 25년간 모은 근대 수집품을 전시한 실내 체험형 박물관이다. 특히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응답하라> 시리즈 속에서 등장했던 물건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 한류에 관심 있던 여행자라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전주난장에서는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골목에서 사용하던 공중 전화기, <응답하라 1997>의 시원이가 듣던 라디오는 물론,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구슬 등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달고나 체험, 만화방 체험, 오락실 체험, 연탄 지게 체험 등 드라마 속에서만 만나보던 소품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다.

약 80개의 테마존이 있어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방문하길 추천한다.



전주난장 내 다양한 레트로 소품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군 현무 2 길 16
- 🕒 영업시간 : 매일 10:00 ~ 19:00 / 입장 마감 18:00
- 🎫 입장료 (23.3 월) : 성인 7,000 원, 중고생 6,000 원

한국적인 멋이 가득한 전주 한옥마을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은 무려 700여 채의 전통한옥이 모여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마을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에서 옛 것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여행지라 더 큰 의미를 지녔다.

기본 정보

- ④ 상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 ⑤ 운영시간 : 연중무휴



목련이 개화한 전주 한옥마을 거리 풍경

• 한옥의 멋이 깃든 골목에서 즐기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

한옥마을에서 경기전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다. 치즈구이, 비빔밥이 들어간 바게트 버거, 문어 꼬치, 전주 초코파이 등 개성 있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걸으면서 한두 개 맛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한옥뿐만 아니라 경기전, 전동성당, 오목교 등 전통과 역사를 느끼기 좋은 명소가 가까이 위치했다. 슬로시티*로 지정될 만큼 시간이 과거에 멈춘 듯한 전주 한옥마을에서 역사적인 볼거리와 전통적인 먹거리를 천천히 따라가보자.



한옥마을 길거리 음식

* 슬로시티: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지역 고유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 운동을 뜻하며 전주 외에도 완도, 담양, 영월, 서천 등이 한국 슬로 시티로 지정됐다.

임금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전주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어진

경기전은 조선 초대 왕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1410년에 지어진 장소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경기전 정전과 어진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 두 곳에 전시된 어진은 모사된 작품이고 진품은 수장고*에 별도로 보관 중이다. 가을이 되면 경기전에서 ‘태조어진봉안축제’가 열려 태조 어진과 경기전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수장고: 귀중한 것들을 간직하는 창고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있는 소장품 보관 장소를 말한다.



경기전 내 대표 포토존

경기전에서는 연인, 친구와 한복을 입고 사진을 담는 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장 유명한 포토 스팟인 대나무 숲 외에도 봄에는 홍매화, 가을에는 은행나무까지 더해져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으니 한복을 대여해 전주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길 추천한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 🕒 운영시간 : 매일 9:00 ~ 19:00 (동절기 18:00 까지 운영)
- 🎫 입장료 ('23.3 월) : 성인 3,000 원 , 청소년 2,000 원 , 어린이 1,000 원
- ☎ 063-281-2788

호남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 전동성당



전동성당 입구 모습

경기전에서 작은 횡단보도만 건너면 주변 한옥과는 다른 분위기의 건축물이 보인다. 서울 명동성당, 대구 계산성당과 함께 한국에서 아름다운 3대 성당으로 꼽히는 전동성당이 그 주인공이다.

전동성당은 최초의 순교자를 기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와 임금을 섬기는 유교사상을 중시했고, 엄격한 신분질서가 존재했다. 천주님을 모시고 그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천주교의 사상은 조선의 유교사상과는 상반되는 이념이었다. 당시 조선의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질 것을 염려한 지배층들은 약 100년 동안 천주교 신도들을 박해했다. 당시 처형된 천주교 신도들의 순교터 위에 세워진 것이 전동성당이다.

전동성당은 서울 명동성당의 내부 공사를 담당했던 프와넬(Poisnel) 신부가 설계해 1914년에 완공되었다. 붉은 벽돌과 둥근 청동 석탑이 특징인 건물 곳곳에는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묻어나 웅장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한다. 전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기도 하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
- 🕒 운영시간 : 매일 9:00 ~ 17:00 / 미사시간 입장불가
- 📅 미사시간 : 월 ~ 금 6:00 / 화 ~ 금 11:00 / 토요일 6:00, 16:00, 18:00 / 일요일 6:00, 9:00, 10:30, 17:00
- ☎️ 063-284-3222

고즈넉한 찻집에서 느끼는 여유, 교동다원

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동성당을 부지런히 살펴봤다면 이제 걸으며 지친 다리를 잠시 쉬게 할 차례이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 전동성당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교동다원'에 들려 편안한 여유를 느껴보자. 교동다원은 100여 년이 넘는 오래된 한옥을 그대로 보존한 찻집으로 전통차와 한국식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찻집이다.



교동다원에서 즐기는 차와 전통 디저트

교동다원에서는 커피 대신 황차, 녹차, 보이차 등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다. 차를 내리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으니 차 한 잔을 누리며 한국의 전통을 체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차와 함께할 달콤한 한국식 디저트가 필요하다면, 유자, 단호박, 밤 등을 이용해 만든 수제 양갱과 꿀 약과, 설기 등을 함께 먹어 보길 추천한다.

양갱은 팔에 설탕, 물엿, 한천을 섞은 후 졸여서 만든 부드러운 화과자 종류 중 하나이다. 보통 양갱은 강한 단맛이 특징인데 이곳은 단맛을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따뜻한 차와 궁합이 훌륭하다.

목을 축이면서 잠시 휴식을 가졌다면 주변 공간에도 눈길을 돌려볼 시간이다. 벽면에 있는 찻잔, 해가 들어오는 창가 자리, 장작이 쌓여 있는 입구까지.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본관은 따뜻한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좌식 공간으로, 별관은 의자와 테이블이 놓인 입식 좌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편안한 좌석을 선택해 공간을 충분히 만끽해 보길 바란다.



다원 내 차도구가 마련된 공간 (좌) 고즈넉한 다원 외관 풍경 (우)

기본 정보

- 📍 상호 : 교동다원
- 📍 상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65-5
- 🕒 영업시간 : 화요일 정기 휴무 / 평일, 일요일 11:00 ~ 20:00 / 토요일 11:00 ~ 21:00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차 6,000 원 ~, 전통디저트 3,800 원 ~
- 🌐 https://www.instagram.com/gyodong_tea/

조선시대 교육의 요람, 전주향교



전주향교 내 대성전 모습 (좌) 전주향교 내 명륜당 모습 (우)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각 지방에 설치된 국립 교육기관을 뜻한다. 지금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전주향교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명륜당’,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 등 옛 교육 시설 모습이 잘 보존되었다. 특히 가을이 되면 향교 곳곳에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이룬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대성전 앞뜰에 있는 은행나무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을 지키며 향교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반겨주니, 느긋한 산책을 즐겨봐도 좋겠다.

* 고려: 조선시대 이전 918년부터 1392년까지 약 474년 동안 한반도를 통치한 불교 왕조를 말한다.

* 공자: 유학의 기초 경전을 정립한 중국 춘추시대의 유학자로 조선시대 유학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39
- 🕒 운영시간: 월요일 정기휴무 (비정기 휴관은 홈페이지 확인)
동절기 10:00 ~ 17:00 / 하절기 9:00 ~ 18:00
- 🌐 <http://www.jjhyanggyo.or.kr>

전주 여행의 마무리, 오목대

전주 한옥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오목대에서 하루 동안 발자취를 남겼던 여행지를 다시금 살펴보며 전주 여행을 마무리해 보자.



정자에서 바라본 전주 한옥마을

오르는 중간에 잠시 뒤를 돌아 한옥마을과 높은 빌딩이 한눈에 담기는 풍경을 감상하길 권한다. 전통한옥과 고층건물들이 교차하는 모습이 이질적이며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일몰 무렵 노을과 어우러진, 볼 켜진 전주 한옥마을의 야경은 아름다움을 배로 만들어준다.

오목대는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장소인데, 고려 1380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왜군을 무찌르고 돌아가던 중 승리를 자축했던 곳이다. 비석 옆 작은 정자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개국한 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목대에 위치한 정자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55
- ☎ 063-281-2114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전주왕이콩나물국밥전문점



전주 대표음식,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은 전국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메뉴이지만, 전주에서 콩나물국밥을 즐기는 방식은 서울과는 조금 다르다.

보통 서울은 팔팔 끓여 나오는 콩나물국밥에 직접 계란을 깨어 뜨거운 열에 익혀 먹는 반면, 전주에서는 수란이 별도로 제공된다. 여기에 국밥 국물과 김을 넣어 비벼 먹거나 국밥 속 콩나물을 꺼내어 적서 먹기도 한다.

전주 교동 근처에는 콩나물국밥집이 여럿 있는데 이는 전주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남천과 서천을 끼고 있는 전주 완산구 교동은 깨끗한 물 공급이 용이했다.

수질 높은 물을 공급받아 자라난 전주 콩나물은 높은 품질과 맛을 자랑했고, 이에 콩나물을 이용한 콩나물국밥집이 하천 옆 남부시장에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콩나물은 전주 10미에 지정된 식재료이기도 하다.

국물 한 입을 들이키면,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속을 뜨끈하게 만들어준다. 시원함을 더해주는 한국의 대표 반찬인 깍두기와 김치, 오징어 젓갈은 국물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간을 맞추기에 충분하다.

전주랭이콩나물국밥전문점에서는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주인 모주와 함께 국밥을 즐길 수 있다. 모주는 막걸리에 한약재를 넣고 끓인 해장술로 낮은 도수와 달달한 맛으로 식사와 함께 즐기기에 적당하다.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콩나물국밥과 곁들여 나오는 반찬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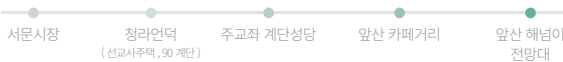
- 📍 상호 : 전주랭이콩나물국밥전문점 📍 상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88
- 🕒 영업시간 : 매일 7:00 ~ 21:00 (라스트오더 20:30)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전주랭이국밥 8,000 원, 모주 한잔 2,000 원 ☎ 063-282-6980

한국 원조 막창골목부터 로컬 푸드까지, 대구 앞산 카페거리

한국의 근대부터 현대까지 현지 식생활을 둘러보는 골목길로 진짜 로컬들의 서문시장 길거리 음식, 한국인의 삶 속에 녹아 든 카페 문화, 한국 원조의 막창 골목까지 즐기는 코스



앞산 카페거리 여행코스(3H)



인근역

- ◇ 대구역 - 서문시장: 버스 20 분
- ◇ 대구역 - 앞산 카페거리: 버스 30 분

대구 코스는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주변 근대문화 여행지를 둘러보고, 이후 앞산 카페 거리로 이동해 대구의 카페들과 아름다운 일몰을 즐기는 코스이다. 서문시장에서 앞산 카페거리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주변 여행지는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대부분 서문 야시장

현지인들의 미식 문화를 옛보다! 서문시장

음식만큼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누구보다 ‘미식’ 여행에 진심이라면, 맛의 도시인 대구로 향해 보자. 여행자들의 입맛에 맞춘 퓨전 음식이 아닌, 진짜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로컬’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에서는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떠한 식재료와 향신료를 즐기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까지 더해지면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관광객의 입맛에 맞게 조리된 음식이 아닌 현지인들이 즐기는 미식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까지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서문시장은 건어물, 해산물, 청과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대형 시장으로 무려 8개 지구, 약 5천여 개의 점포가 들어섰다. 특히 밤에는 야시장이 열려 다양한 거리 음식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잡는다.

| 서문시장 에서 즐기는 길거리 음식



해물 칼제비

· 칼제비

칼국수와 수제비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시원한 국물에 끓여 먹는 한국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 두 요리의 기본 국물 베이스는 비슷하지만 칼국수는 길게 뽑아낸 면 요리, 수제비는 밀가루를 조금씩 떼어내 익혀 낸 요리라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명 칼제비를 판매하고 있으니 두 가지 음식을 모두 즐기고 싶다면 칼제비가 좋은 선택지다.

납작만두

한국의 만두는 밀가루를 반죽해 얇게 만든 피에 채소와 고기를 다져 넣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구의 납작만두는 얇은 만두피에 당면을 살짝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내 부쳐낸다. 기름에 튀기듯이 구운 납작만두는 만두피가 튀김처럼 바삭해 떡볶이 국물이나 간장 양념과 함께 먹는 편이다.

납작만두는 대구10미*에 선정된 메뉴이기도 하다.

* 대구 10 미 :

대구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 10 가지. 대구따로국밥, 막창구이, 몽티기, 납작만두, 동인동점갈비, 논메기매운탕, 북어불고기, 누른국수, 무침회, 야끼우동이 해당된다.



납작만두



설탕 옷을 입은 간식 파배기

• 파배기

밀가루나 찹쌀가루를 반죽해 튀겨 낸 한국식 도넛이다. 두 가닥으로 꼬아낸 모양새와 겉에 잔뜩 뿌려낸 달달한 설탕이 특징으로,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 염통 꼬치

독특한 요리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염통 꼬치’를 추천한다.

닭의 심장(염통)을 꼬치에 끼워 구워낸 요리로 다양한 소스를 곁들여 먹는다.



염통 꼬치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대구 중구 달성로 50
- 🕒 영업 시간 : 매일 9:00 ~ 18:00 (매달 1, 3 번째 일요일 정기 휴무)
/ 야시장 19:00 ~ 22:30 (매주 화요일 정기 휴무)

한국의 근대 문화가 깃든 청라언덕

청라언덕은 20세기 초 기독교 선교사들이 생활했던 주택 구역이다. 당시 선교사들이 거주하며 담쟁이를 많이 심어 푸른(靑: 푸를 청), 담쟁이(蘿: 담쟁이 라)라는 뜻을 담아 청라언덕이라 부르게 됐다. 스위트 주택, 블레어 주택과 같은 옛 선교사들이 실제로 머물렀던 주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주택 주변에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의 묘지가 자리해 그들의 영혼을 기리고 있다.



청라언덕 전경

• 선교사주택

1910년대에 지어진 선교사 주택들로부터 대구의 초기 서양식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붉은 벽돌을 쌓아 올린 미국식 건축 양식에 ‘기와’라는 한국의 전통 지붕을 엮어낸 형태로, 한국의 건축 양식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방갈로풍의 주택이다. 스위트주택은 현재 선교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1층에는 각종 성경과 선교 유물 등의 사진 자료가, 2층에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구입한 구약, 신약 관련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선교사 스위트주택

• 90계단

1919년 3월 1일, 일제 식민 통치 하에 있던 대한민국에 전국적인 평화 독립 만세 운동이 시작됐다.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한반도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 지역까지 번져갔다. 대구에서 3.1 만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90계단을 지나 집결지로 향했던 당시의 현장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계단 중간에 있는 AR 영상 체험을 통해 당시 시민들의 의연한 정신을 느껴보자.



90 계단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29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 주교좌 계산성당

90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맞은편 1900년대에 지어진 ‘주교좌 계산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계산성당은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평양에 이어 세 번째로 세워진 성당으로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초기 한옥으로 건축됐던 계산성당은 몇 차례의 증축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탄생했다. 고딕 양식을 가미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은 서울 명동성당, 전주 전동성당을 설계한 프랑스 프와넬(Poisnel) 신부가 설계했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대구 중구 서성로 10 ☎ 053-254-2300
- 🕒 운영시간 : 미사시간 입장불가
- 미사시간 : 월 ~ 금 6:30 / 화 ~ 금 11:00, 19:30 토요일 6:30, 16:00, 19:30
- 일요일 6:30, 8:00, 9:30, 11:00, 17:00



주교좌 계산성당



벚꽃이 피어난 카페거리의 모습

커피 향기가 흐르는 앞산 카페거리

대구의 거리 음식과 근대문화의 한 장면을 살피었다면, 이제 앞산 카페거리로 이동해 한국의 카페 문화를 경험해 보자.

한국의 미식여행에서는 카페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즐기는 문화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페 체인점 외에도 수많은 개인 카페들이 존재하는데, 카페가 밀집한 지역은 ‘카페거리’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곤 한다. 대구의 앞산 카페거리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앞산 카페거리는 봄철에는 새하얀 벚꽃, 여름에는 푸르른 녹음, 가을에는 샛노란 은행나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꾸며져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대구 남구 대명남로 192 🕒 운영시간 : 점포마다 상이

앞산 카페거리 추천메뉴

맛과 뷰를 고루 챙긴 카페, **아녹 앞산**

앞산 카페거리 초입에서 앞산 방면으로 약 10분간 걷다 보면 아녹 앞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녹의 공간이 특히 빛을 발하는 시기는 봄철로, 카페 주변에 벚꽃이 만개해 테라스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눈치싸움도 꽤나 치열하다.

아녹 앞산은 좋은 공간을 넘어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 스스로를 소개한다. 정기적으로 원두의 맛과 향을 시음하고 평가하는 커피(Cupping) 작업을 통해 품질 좋은 커피를 선보이고자 하며, 반죽부터 굽기까지 모든 제빵 공정을 직접 담당해 당일 생산한 베이커리 메뉴를 판매한다.

2022년부터 베이글 맛집들이 여러 차례 방송에 소개되면서,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베이글은 손꼽히는 인기 베이커리 메뉴가 되었다. 특히 쪽파가 들어간 크림치즈 베이글은 이색적인 조합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아녹 앞산 역시 다양하게 속 재료를 채운 베이글을 판매 중이다.

달달한 맛을 원한다면 팔랑금과 버터를 더한 ‘앙버터 베이글’을, 2023 트렌드를 반영한 메뉴를 맛보고 싶다면 쪽파와 크림치즈를 곁들인 ‘스프링 베이글’을 주문해 보길 권한다.



벚꽃이 만개한 아녹 앞산 테라스



아녹 앞산의 카페라테



아녹 앞산의 베이글과 커피

기본 정보

- ☺ 상호: 아녹 앞산
- 📍 상세 주소: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459
- 🕒 영업시간: 매일 10:00 ~ 22:00 (브런치 이용시간 17 시까지)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월): 커피 5,000원 ~, 스프링 베이글 6,500원, 앙버터 베이글 6,000원
- ☎ 0507-1422-1060



앞산 해님이 전망대와 뒤로 지는 일몰

옛 빨래터에 지어진 일몰 명소 앞산 해님이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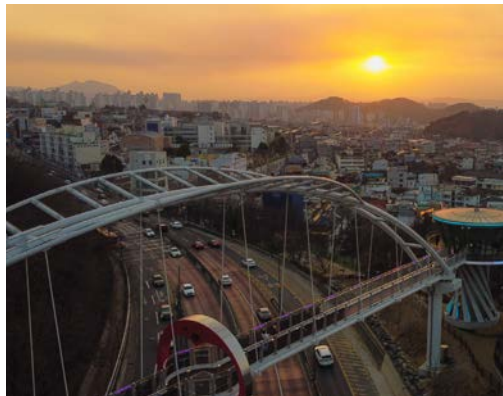
일몰 무렵이 가까워지면 대구의 일몰 명소인 앞산 해님이 전망대로 향할 차례다. 아늑 앞산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앞산 해님이 전망대에서는 대구 시내의 전경과 주황빛 노을을 만끽할 수 있다.

앞산 해님이 전망대는 과거 대구의 대표적인 빨래터였던 앞산 빨래터 공원에 위치한다. 빨래터의 역사와 상징을 담아, 빨래를 돌돌 고아서 짜는 모습을 형상화해 만들어졌다.

빙그르르 굽이진 나무 데크를 따라 오르면 뒤로는 앞산의 산세가, 앞으로는 대구 시내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일몰을 관람한 뒤에는 전망대 아래로 내려와 앞산 빨래터 공원의 미디어 파사드를 관람해 보는 것도 좋겠다.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총 5분 40초간 반복 상영된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대구 남구 대명동 1501-2
- 🕒 운영시간 : 매일 9:00 ~ 22:00



앞산 해님이 전망대의 전경

대구를 대표하는 막창구이를 찾아, 안지랑 곱창골목



안지랑 곱창골목 거리 풍경

안지랑 곱창골목에서는 막창과 곱창을 고루 맛볼 수 있다. 막창과 곱창은 소와 돼지의 내장 부위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이지만, 곱창 막창 골목이 조성될 정도로 로컬이 사랑하는 메뉴이기도 하다. 막창구이를 주문하면 콩을 발효시켜 만든 한국의 대표 양념인 된장에 마늘과 쪽파를 곁들여 내어준다. 소스를 듬뿍 찍어 함께 먹으면 소스의 향과 막창 고유의 향이 잘 융화돼 더 쉽게 그 맛을 즐길 수 있다.



막창구이와 소스의 조합

대구 골목여행의 마지막은 앞산 해넘이 전망대에서 도보로 약 18분 거리에 위치한 안지랑 곱창골목이다. 아마 한국인 친구에게 “대구의 대표 음식이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창’이라고 말할 것이다.

70년대 초 대구에서 시작된 막창구이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 대구의 대표 향토음식인 대구 10미에 선정될 정도로 대표적인 지역 음식이 되었다.



대표 메뉴인 막창구이와 곱창구이

한국에서 막창구이는 주로 늦은 저녁, 술과 함께 곁들여 먹는 안주로 사랑받는다. 쫄깃하고 고소한 막창구이에 술을 한잔하고 싶다면 한국 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소주와 함께해보자.

막창구이와 소주는 대구 골목여행의 마침표를 찍기에 완벽한 궁합일 것이다.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대구 남구 대명로 36 길
- 🕒 운영시간 : 점포마다 상이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월) : 막창 9,000 원 선, 점포마다 상이

오션뷰를 배경으로 양은 냄비 라면과 성게알김밥, 부산 흰여울문화마을길

바다를 따라 아기자기한 소품숍과 벽화를 구경할 수 있는 한국의 산토리니. 옛 한국의 정취가 느껴지는 양은 냄비 라면뿐만 아니라 한국 해녀 문화 전시관과 그 속에서 맛보는 성게알 김밥까지 더한 골목 여행 코스



흰여울문화마을길 여행코스(3.5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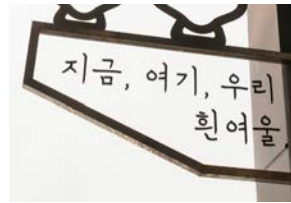


인근역

◇ 부산역 - 영도 흰여울마을
: 버스 30 분

바다를 마주한 해양도시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의 항구도시로 대도시의 면모를 갖춘 곳이다. 부산역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나타나는 섬 '영도'에는 부산 시내와는 전혀 다른 아기자기한 풍경이 펼쳐진다. 푸르른 부산 바다와 어깨를 나란히, 골목길을 따라 아기자기한 상점을 둘러보고 가벼운 간식을 맛본 뒤, 해안산책로를 거닐며 부산 바다를 마음껏 즐긴다. 여기에 한국의 해녀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과 싱싱한 해산물 요리까지 더해 항구도시의 매력을 고루 담았다.

푸른 바다와 정겨운 골목길, 흰여울문화마을



흰여울문화마을의 아기자기한 골목 풍경

흰여울문화마을은 본래 한국전쟁*당시 내려온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마을이었다. 산기슭을 따라 형성된 마을에는 폐가와 빈집들이 밀집해 있어 버려진 동네와도 같았는데, 2011년 마을 재생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과 창작자들의 화합이 어우러진 문화 예술마을로 변모했다. ‘흰여울문화마을’이라는 이름 또한 이때 지어졌는데, 영도의 중심에 자리한 봉래산 기슭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줄기의 모습이 마치 흰 눈이 내리듯 빠른 물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의 산토리니’라는 별명을 가진 흰여울길은 14개의 골목길로 이루어졌고, 마을 곳곳에는 주택을 개조한 조그마한 소품샵과 오션뷰가 펼쳐지는 카페가 옹기종기 들어서 있다. 보물찾기 하듯 골목길을 오가며 좁은 골목길에서 낮잠 자는 고양이, 귀여운 벽화와 같은 걸어야만 보이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즐겨보길 바란다.

* 한국전쟁 :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한반도에서 지속된 전쟁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부산 영도구 영선동 4가 605-3

가볍게 즐기는 한 끼, 흰여울점빵

흰여울길을 거닐다 배가 허전해지면 흰여울점빵에서 가벼운 식사를 즐기기 좋다. 흰여울문화마을 중앙에 위치한 흰여울점빵은 아기자기한 카페 인테리어와 어디서든 펼쳐지는 오션뷰로 사랑받는 장소다. 입구 앞 테라스 자리를 비롯해 2층, 3층 모두 바다 방향으로 테이블이 준비되어 눈부신 바다 풍경을 즐기기 좋다.

흰여울점빵의 식사 메뉴는 라면과 토스트 단 두 개뿐이다. 라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스턴트 음식으로 면에 수프, 건더기를 넣고 끓여 낸 요리이다. 한국의 라면은 매콤한 맛이 특징인데 이곳에서는 기본 라면에 어묵, 대파 등의 재료를 추가해 시원한 국물 맛을 즐길 수 있다.



흰여울점빵의 대표 메뉴, 라면과 토스트



현여울점빵 내부 (좌) 양은 냄비에 담겨 나오는 라면 (우)



라면이 담겨 나오는 누런빛의 양은 냄비는 과거에 대한 향수까지 불러일으켜 한국인들에게 반응이 좋다. 열전도율이 높아 금방 끓는 특성이 있는 양은 냄비는 70년대부터 주로 사용되어 왔다. 요즘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사라진 문화이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그 시대의 방식으로 라면을 끓여 한국의 옛 문화를 체험해 보기 좋다.

또 다른 메뉴인 토스트는 바삭하게 구운 식빵에 양배추, 햄, 치즈로 속을 푸짐하게 채워냈다. 한 개를 주문하면 반으로 잘라 두 개의 종이컵에 담아주니, 2인이 방문한다면 하나씩 나눠 먹기에 좋다. 라면이 살짝 매콤하게 느껴질 때, 고소한 토스트 한 입을 베어 물면 매콤함이 중화된다.

기본 정보

- 📍 상호 : 현여울점빵
- 📍 상세 주소 : 부산 영도구 현여울길 121
- 🕒 운영시간 : 매일 12:00 ~ 재료 소진 시까지 / 노키즈존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라면 5,000 원, 토스트 4,000 원

아늑한 바다 서점 카페, 손목서가

가벼운 식사로 산책 후의 허기짐을 채웠다면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더해보자. 손목서가는 사진가 남편과 시인인 아내가 함께 운영하는 서점 겸 카페다. 1층은 서점 겸 주문 공간으로 책과 소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좁은 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면 마치 다락방과 같은 공간이 나타난다. 책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공간답게 내부는 사뭇 조용한 분위기이니,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기를 추천한다.

손목서가에서는 핸드드립 커피 외에 주류도 판매 중이다. 인기 메뉴는 끓인 와인인 ‘글루바인’인데 논알콜 메뉴로 도보 여행 중에도 가볍게 즐기기에 좋다.

또한 낮선 타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과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니 꼭 둘러보길 추천한다.

기본 정보

- ☞ 상호 : 손목서가
- ☞ 상세 주소 : 부산 영도구 흰여울길 307
- ☞ 운영시간 : 매일 11:00 ~ 19:00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핸드드립 커피 6,000 원, 글루바인 7,000 원
- ☎ 051-8634-0103



손목서가의 글루바인과 핸드드립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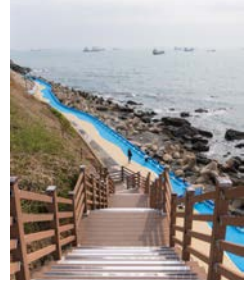
손목서가 1층 풍경 (좌) 손목서가 2층 풍경 (우)

영도의 해안선을 따라 걷다. 절영해안산책로

말머리 계단, 무지개 계단 등 흰여울길 중간중간에 위치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절벽 아래 위치한 절영해안산책로로 연결된다. 절영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로 흰여울문화마을 아래부터 태종대까지 약 3km 가량 이어져 있다. 마치 파도를 연상시키는 바닥 문양과 담벼락을 따라 조성된 벽화, 그리고 시원하게 펼쳐지는 청량한 바다 풍경으로 부산 바다를 온전히 누리보자.

기본 정보

상세 주소 : 부산 영도구 영선동 4 가 186-66



영도의 대표 산책로, 절영해안산책로

절영산책로의 인기 포토존, 흰여울 해안터널

절영해안산책로에서 태종대 방면으로 걷다 보면 무지개 계단 옆 해안터널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동굴 같은 흰여울 해안터널을 지나면 반대편에는 전혀 다른 해안 길이 펼쳐진다. 자갈이 퇴적한 몽돌 해변과 가파르게 깎인 기암절벽까지 겹겹이 쌓인 해변의 독특한 지형에서 자연의 신비로운 풍경을 누릴 수 있다.

기본 정보

상세 주소 : 부산 영도구 영선동 4 가 1210-38



해안터널 포토존과 화려한 색감의 무지개 계단

맞은편에서 볼 수 있는 해변 풍경

부산 바다가 한눈에 영도 하늘전망대

현여울해안터널에서 도보로 25분 거리에 위치한 영도 하늘전망대에서는 거제도, 가덕도 등 동해에 위치한 섬들과 청명한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망대 끝에는 망원경이 설치되어 섬을 비롯해 바다에 떠 있는 커다란 선박들도 천천히 살펴볼 수 있다.

전망대의 바닥은 반투명한 스카이워크로 되어 있어 아찔함도 선사한다. 다리에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연인들의 자물쇠도 걸려 있으니 연인과 함께 방문한다면 자물쇠를 걸어봐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부산 영도구 동삼동 628-66



영도 바다 풍경을 조망하기 좋은 전망대 (좌)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망원경 (우)

숨비소리가 흐르는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입구 (좌)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내부 (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바닷가 마을에는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이 있다. 해녀는 산소마스크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수심 10m까지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한다. 요즘은 잠수복이나 오리발을 신고 들어가지만 과거에는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바닷물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자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제주 해녀문화가 등재됐다. 1920년대 제주도 해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출어를 나가기 전 영도에 체류하는 수가 많아지며 영도의 해녀문화도 발달하게 되었다.

영도 해녀문화전시관은 1부 숨비소리 구간, 2부 해녀들이 사용한 도구, 3부 영도 바다 속 해산물, 4부 해녀의 업과 생가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숨비소리는 해녀들이 잠수를 마치고 수면에 떠올라 숨을 내뿔을 때 내는 독특한 소리를 말한다. 전시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실제 녹음된 해녀들의 숨비소리가 들려와 마치 바닷속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부산 영도구 종리남로 2-36 🕒 운영시간 : 9:00 - 18:00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 입장료 (23.3월) : 무료 ☎ 051-419-4505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맛볼 수 있는 싱싱한 해산물

싱싱한 해산물로 부산 바다를 느끼다! 영도해녀촌

신비로운 해녀 문화와 다양한 해산물을 보며 출출해졌다면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1층으로 향해 보자. 1층에는 식당이 마련되어 푸짐한 해산물 식사를 즐기기에 좋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야외 테이블에서의 식사는 싱싱한 해산물에 낭만까지 더해준다. 실내에서 식사를 한다면 1층에서 주문 후 테이블에서 대기하면 되고, 야외 바닷가 자리로 간다면 메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들고 자리로 가면 된다. 주문을 하면 즉시 조리해 내어주니 바다의 참맛이 입안 가득 펼쳐진다.

해녀촌의 또 다른 별미는 김밥이다. 김밥은 쌀로 지은 밥에 다양한 채소를 넣고 김에 돌돌 만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넣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해녀촌의 김밥은 시금치, 햄, 단무지 등 기본 재료만 들어간 평범한 김밥이지만, 성게알을 별도로 주문해 김밥 위에 얹어 먹으면 성게알 김밥이라는 별미가 탄생한다. 성게알 초밥 한 알이 일반 레스토랑에서 한화 약 5천 원(23.3월)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메뉴라 볼 수 있겠다. 이곳은 한국의 유명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국내 맛집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 소개한 곳이기도 하다.



영도 해녀촌의 별미 성게알 김밥과 부산 대표 소주 브랜드 대선

기본 정보

📍 상호: 영도해녀촌 📍 상세 주소: 부산 영도구 중리남로 2-35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1층 🕒 운영시간: 9:00 ~ 18:00 (매주 월 정기 휴무)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월): 성게알 10,000 원, 김밥 2 줄 5,000 원, 해산물 모듬 (소) 30,000 원

제주 특산물로 양껏 즐기, 제주 애월 한담해안산책로

에메랄드빛 바다를 즐기며 제주의 특산물을 한껏 즐기는 코스. 초승달 모양의 애월포구 바다를 마주 보며 제주 특산물인 전복요리와 흑돼지구이, 한라봉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맛보며 제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여행



애월 한담해안산책로 여행코스(3H)



인근역

◇ 제주공항 - 애월 한담해안산책로
: 버스 1시간

바다, 오름, 산을 모두 담고 있는 한국의 휴양지 제주도. 봄이면 각종 꽃들이, 여름에는 아자수와 푸른 바다가, 가을에는 억새, 겨울에는 설산을 만날 수 있는 변화무쌍한 여행지이다. 한라산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 섬 제주도 곳곳에서는 오름, 용암이 굳어서 생긴 주상절리, 용암동굴, 현무암 지대 등 한반도 내륙에서는 보기 드문 경관들이 펼쳐진다. 그중에서도 애월 한담해안산책로는 해안산책로와 투명 카약, 전망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 바다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제주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맛보며 바다와 미식 모두 놓치지 않는 제주 여행을 즐겨보자.



에메랄드빛 바다색을 자랑하는 애월 한담해안산책로 전경

제주바다를 가까이에서 애월 한담해안산책로

바다가 아름다운 애월읍의 옛 이름은 ‘갯달’로 추정한다. 이는 해안가를 뜻하는 제주 사투리 ‘갯’과 ‘달’이 합쳐진 이름으로 애월포구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초승달을 닮은 구불구불한 제주 해안을 따라 애월에서 곽지까지 이어지는 애월 한담해안산책로로 향해 보자. 2009년, 제주시가 애월 한담해안산책로를 ‘숨은 비경 31’로 지정한 후 산책로를 따라 카페, 식당이 많이 생겨났다. 이제는 찾는 인파가 많아져 더 이상 ‘숨은 비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방문하면 만족할 장소이다.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59

다양한 전복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애월은혜전복

제주 바닷길 여행은 제주산 전복 요리로 시작해 보자. 다시마와 해조류를 먹고 자란 전복은 패류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아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 최상급 식재료로 여겨진다.

그중 제주산 전복은 한국에서도 맛과 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제주 갯바위 틈새에서 거센 해류를 견디며 자라 힘이 좋고 그 덕에 찰진 식감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애월 한담해안산책로 입구에 위치한 은혜전복은 전복을 주 재료로, 전복 돌솥밥, 전복 뚝배기, 전복죽, 전복 해물라면 등을 판매하는 전복 전문 식당이다.

대표 메뉴는 쌀 위에 얇게 자른 전복이 푸짐하게 올라간 전복 돌솥밥과 전복을 비롯한 제주 해산물이 가득 들어간 전복 뚝배기다.



전복뚝배기와 함께 나오는 반찬 모습



갓 나온 전복돌솥밥

전복 돌솥밥에 나온 전복과 밥을 덜어 특제 간장* 양념과 함께 비벼 먹으면 전복 특유의 식감과 풍미를 진하게 느낄 수 있다. 밥을 덜어낸 빈 솥에 따뜻한 물을 부어 놓으면 밥을 먹는 동안 솥에 늘어붙은 밥 ‘누룽지’가 물에 불어난다. 돌솥밥 메뉴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한국식 후식, 송송이다. 구수하면서 깔끔한 국물 맛이 느껴져 식사 마무리 단계에 입을 개운하게 해준다.



또 다른 대표 메뉴 전복 독배기는 콩으로 만든 한국식 발효 양념장 ‘된장’을 베이스로 해산물을 넣고 끓인 국물 요리다. 새우, 게, 홍합, 소라 등 다양한 해산물에 화룡점정으로 전복까지 더했으니 화려한 해산물 요리를 즐겨볼 수 있겠다. 된장으로 우려낸 따뜻하고 진한 국물 맛에 제주산 해산물의 깊은 맛을 동시에 느껴보자.

* 간장: 콩을 발효시켜 만든 조미료

기본 정보

- 📍 상호 : 애월은혜전복
- 📍 상세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길 24-3 1층
- 🕒 영업시간 : 매일 9:40 ~ 20:00(라스트오더 19:00)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전복돌솥밥 17,000 원 , 전복독배기 17,000 원
- ☎ 064-799-9060

한담해변에서 즐기는 수상체험, 제주카약올레



한담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카약

매월 한담해안산책로 초입에 위치한 한담해변에서는 제주 바다를 마음껏 유영할 수 있는 카약 탑승이 가능하다. 바닷속을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투명한 카약으로, 발밑으로 돌과 이끼까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바다 날씨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날씨를 체크한 뒤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카약을 즐기지 않아도 해변 옆 정자에 앉아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기본 정보

- 📍 상호 : 제주카약올레
- 📍 상세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 길 22
- 🕒 영업시간 : 매일 10:00 ~ 18:00
- 📄 체험비 (23.3 월) : 30 분 이용 성인 15,000 원, 초등학생 이하 10,000 원
- ☎ 010-4683-6492

오션뷰 카페에서 즐기는 한라봉 디저트, 트라이브

카약을 타며 제주 바다를 마음껏 즐겼다면,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오션뷰 카페로 향할 시간이다. 카페 트라이브는 오션뷰 풍경을 즐기며 한라봉을 이용한 디저트와 음료를 맛볼 수 있다. 한라봉은 꿀 바른 오렌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큼하고 달달한 맛이 일품인 제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1990년대부터 제주도에서 재배를 시작한 한라봉은 위로 솟은 열매의 꼭지 모양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연상시켜 ‘한라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한라봉 마카롱이 올라간 한라봉 수플레



트라이브의 한라봉 셔벗 에이드와 한라봉 수플레

트라이브에서는 한라봉을 이용한 음료를 비롯해 돌하르방, 한라산 등 제주 대표 이미지를 주제로 만든 디저트를 판매한다. 한라봉으로 만든 셔벗이 올라간 ‘한라봉 셔벗 에이드’는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매력적이며 중간중간 씹히는 한라봉 알갱이는 색다른 식감을 준다.

한라봉 마카롱이 올라간 ‘한라봉 수플레’는 이곳의 대표 디저트 메뉴로 귀여운 비주얼과 폭신한 식감으로 인기가 높다. 수플레 위에는 달달한 크림과 마카롱이, 옆에는 제주산 꿀을 말린 꿀 칩이 담겨 나온다.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는 한라봉 잼을 따로 제공하니 잼을 더하며 취향껏 즐기면 되겠다.

기본 정보

📍 상호 : 트라이브

📍 상세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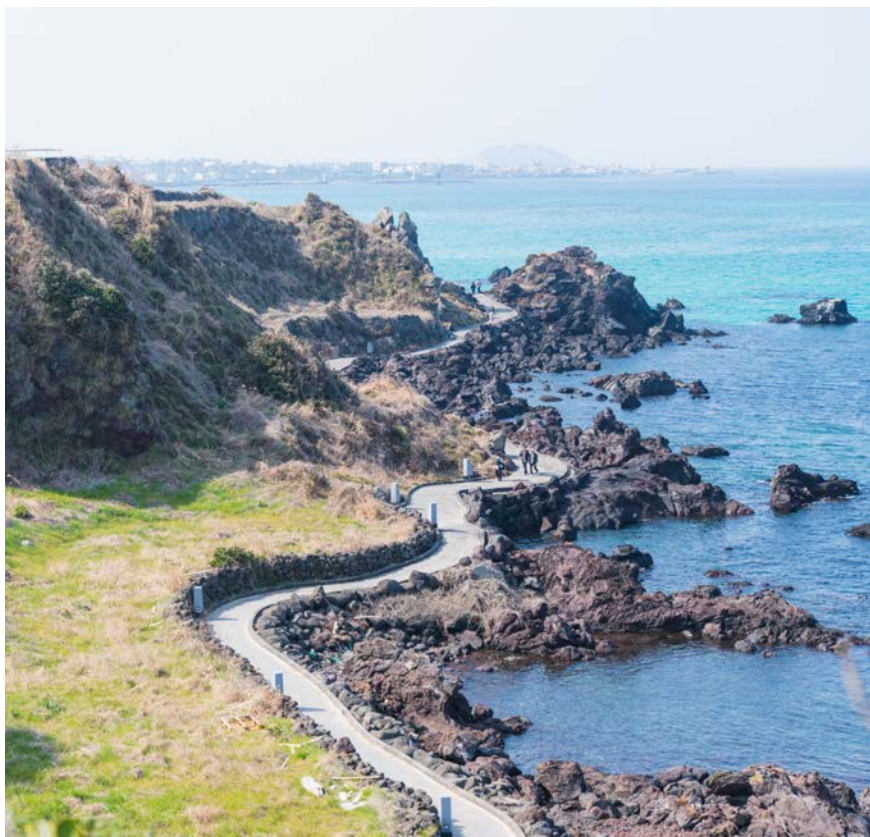
🕒 영업시간 : 매일 9:00 ~ 21:00(라스트오더 20:30)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월) : 한라봉 수플레 19,000 원, 한라봉 셔벗 에이드 7,500 원, 커피류 5,500-

☎ 064-799-1031

해안산책로를 한 눈에 담다, 애월한담공원

애월한담공원은 해안산책로 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해 구불구불한 산책길의 모습도 먼바다의 색도 또렷하게 보인다. 빛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제주 바다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포착해 보자. 제주바다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끽하고 싶다면 애월 한담해안산책로를, 먼바다까지 한눈에 내려다보고 싶다면 한담공원으로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한담공원에서 보는 애월 한담해안산책로 모습

기본 정보

- 📍 상세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1
- 🕒 영업시간 : 연중무휴

차가운 용천수가 솟는 곽지해수욕장



일몰 장소로 유명한 곽지해수욕장

해안산책로를 따라 20분 정도 걷다 보면 모래사장이 있는 곽지해수욕장에 도착한다. 여름철 제주해수욕장은 서핑과 피서를 즐기는 여행객으로 가득하다. 곽지해수욕장에는 개장시기에 맞춰 개방하는 과물노천탕이라는 이색공간이 있다. 이곳은 더운 여름에도 15도의 차가운 용천수가 솟아오르는 노천탕이다. 발을 담글 수 있는 작은 탕이다.

제주에는 약 600여 개의 용천수가 있다. 화산섬인 제주의 지질 특성상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지 못하고 땅속으로 바로 스며든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는 용천수를 식수나 생활 및 농업용수로 이용하곤 한다. 제주의 생명수인 용천수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니 노천탕에서 한여름 더위를 잠시 피해 가도 좋겠다.

또한 곽지해수욕장은 바다 방향으로 큰 장애물이 없어 시야가 일몰을 보기에 제격인 장소이다.



곽지해수욕장 입구



용천수가 솟아오르는 과물노천탕

기본 정보

📍 상세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원당길

한적한 매력이 넘치는 금성포구&실크브릿지

곽지해수욕장에서 약 10분 정도 걸으면 금성천과 바다가 만나는 금성포구에 도착한다. 오래전에는 육지와 중국을 왕래하는 배들이 드나들었던 중요한 포구였지만, 현재는 하천에서 밀려온 암석들에 의해 포구 입구가 막혀 배가 드나들지 않는다.



포구에 놓인 작은 배 (좌) 포구에서 보는 제주 바다 풍경 (우)

포구 뒤편으로는 실크브릿지(금성 비단교)가 있는데 이는 금성천으로 나뉘는 한림읍과 애월읍을 연결하는 다리다. 특히 해질 무렵에는 실크브릿지에 조명이 들어와 점등된 다리를 보며 야간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다. 다리를 건너면 JTBC 예능 프로그램 <갑자기 히어로즈>에서 조성한 ‘갑자기 히어로즈’ 벽화가 보인다.

<갑자기 히어로즈>는 레드벨벳, 러블리즈, B1A4 등 K-POP 아이돌 게스트와 함께 제주 마을 곳곳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해안 도로를 따라 알록달록하게 그려진 돌하르방, 출연진들의 캐리커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실크브릿지와 제주 노을 풍경



실크브릿지 너머 히어로즈 벽화

기본 정보

- 📍 금성포구 상세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573-1
- 📍 실크브릿지 상세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569-5

제주 바다 앞에서 즐기는 제주 흑돼지, 해저



오션뷰에서 즐기는 제주 흑돼지



잘 구워진 흑돼지와 멜젓 모습

제주 해산물과 제주 특산물 디저트를 맛보았다면 이제 제주 흑돼지로 마무리할 차례이다.

제주 흑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근내 지방량이 13배 정도 많아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육즙을 자랑한다. 게다가 제주의 비옥한 풍토에서 자란 제주 흑돼지는 체질적으로 건강하고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질 좋은 고기 맛을 자랑해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먹고 가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제주 흑돼지를 맛있게 먹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두툼하게 자른 고기를 멜젓(멸치젓)에 찍어 먹는 방식이다. 멸치젓은 멸치를 소금에 절여서 숙성시킨 맑은 젓갈로 김치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하다.

제주에서는 멸치젓을 ‘멜젓’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인 멸치젓에 비해 걸쭉하게 만들어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는다. 걸쭉한 상태의 멜젓을 불판에 올려 끓여먹으면 멜젓의 짭조름한 맛이 더 강해져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데 제격이다.



해저 외관



해저 실내 오션뷰 좌석

해저는 속성된 제주 흑돼지와 제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션뷰 식당이다.

모든 테이블에서 바다를 보며 목살과 삼겹살, 가브리살 등 다양한 돼지고기 부위를 맛볼 수 있어 제주 여행의 마무리로 추천한다.

기본 정보

- 🏠 상호 : 해저 제주한림협재본점
- 📍 상세 주소 : 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4169-3
- 🕒 영업시간 : 11:00 ~ 22:00 (라스트오더 21:00)
- 📄 대표 메뉴 및 가격 ('23.3 월) : 초숙성 목살 25,000 원 , 드라이에이징 삼겹살 18,00 원 , 흑돼지 김치찌개 6,000 원
- 🌐 https://www.instagram.com/jeju_haejeo/



발행시기 | 2023.5월

발행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전략팀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10 (우) 26464

